

# 미국과 영국의 1992년 '베스트 북'

## 「뉴욕타임스북리뷰」와 「리터러리서플리먼트」지가 뽑은 최고의 책들

오애리

문화일보 해외문화부 기자

미국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서평전문지 「뉴욕타임스 북리뷰」 최근호가 92년 한해를 빛낸 '올해의 책' 9권을 선정, 발표했다.

「북리뷰」 편집진 11명이 12주에 걸친 격론 끝에 선정한 작품은 소설 4편, 에세이 1편, 傳記 1편, 역사물 1편, 르포 1편, 과학철학 1편 등. 올해 미국 출판계에서는 귀스타브 쿠르베, 앨버트 아인슈타인, 한나 아렌트 등의 시간집이 쏟아져 나왔으나, 선정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올해의 책'으로 뽑힌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 ■개미와孔雀 (헬레나 크로닌, 케임브리지 대학출판부)

찰스 다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전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온 동물의 이타주의와 性的 차별화 문제를 다룬 과학철학서. 비전문가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철학도 출신의 옥스포드대학 동물학 교수.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흥미롭게 살필 수 있는 책이다.

### ■영국 환자 (마이클 온타트체, 크넵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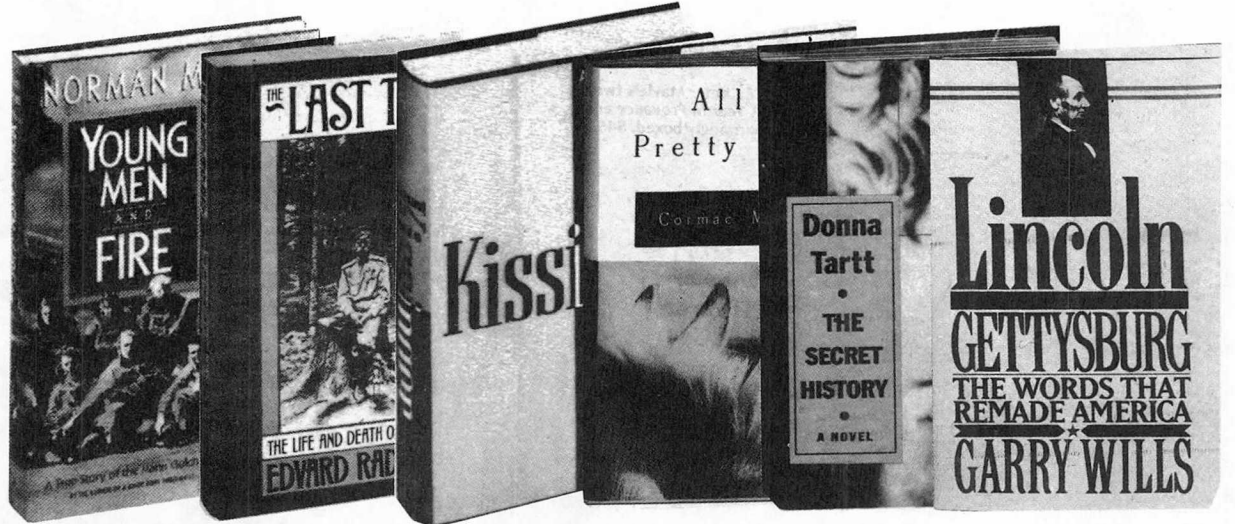
2차대전 당시 이탈리아 북부 투스카니 지방의 한 호젓한 별장에 은거중인 내사람의 심리를 다룬 소설. 火傷으로 죽어가는 영국인과 캐나다 간호사, 비밀첩보원, 인도출신 폭탄 전문가 등 국적과 배경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열정, 상실감, 고통을 그렸다. 특히 비행기 폭격과 폭탄제거 장면 묘사가 탁월하다.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 수상작이며, 「타임」誌도 '올해 최고의 소설'로 뽑은 작품.

### ■재즈 (토니 모리슨, 크넵프)

십대소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중년남자와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20세기 초 할렘지역 흑인들의 삶을 그렸다. 美문학계의 대표적인 흑인 여류소설가 모리슨의 문학적 역량이 농익은 수작으로 평가된다.

### ■키신저 (윌터 아이작슨, 사이몬 & 슈스터)

70년대 국제 외교무대를 주름잡았던 헨리 키신저 前 국무장관의 전기. 「타임」지 편집부국장인 저자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는 물론 25회에 걸친 키신저 인터뷰, 닉슨, 포드 전 대통령 및 친지들과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키신저의 정



치적 성장과정, 이중적 성격 등을 철저하게 파헤쳤다. 또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인 닉슨과 키신저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불안정한 성격, 권력욕, 기회주의 같은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제까지 출간된 키신저 관련 책들의 '완결편'이란 극찬을 받았다.

### ■게티스버그의 링컨 (게리 윌스, 사이몬 & 슈스터)

현대 정치연설의 典範으로 평가되는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정치인, 웅변가로서 링컨대통령의 면모와 미국의 건국이념을 재조명했다. 저자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역사학자.

### ■아우터브리지 리치 (로버트 스톤, 티크너 & 필즈)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중년 광고카피라이터가 벌이는 단독 항해모험소설. 스톤의 前작에 비해 힘이 넘치고 문학성이 높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독자들을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매력이다. 특히 마지막 1백여 페이지의 긴박감이 압권이다.

### ■부활 (패트 바커, 윌리엄 에이브래햄, 북더튼)

1차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反戰활동을 펼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영국인인 시그 프리드 사순을 소재로 한 전기소설. 전기충격요법의 대가인 신경학자 W.H.R. 리버스와 사순이 담당의사와 환자관계를 뛰어넘어 맺게 된 우정, 전쟁, 광기 등을 다루고 있다. 바커는 사

실주의적인 노동소설로 유명한 여류작가.

### ■잃어버린高地 (W.S. 머윈, 크넵프)

미국 시인 머윈이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서 직접 살며 경험한 시골생활을 묘사한 3부작 에세이집. 포도밭길, 정원, 안개, 태양, 달빛 등 프랑스 남부 특유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전통을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감있게 그리고 있다.

### ■청년들과 火災 (노먼 맥클린, 시카고대학 출판부)

1949년 몬타나주 산림대화재 때 순직한 젊은 소방수 13명의 활약과 용맹성을 회고한 르포 스타일의 작품. 소설가인 맥클린은 74세 때인 76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해, 88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소방수 13명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자연의 힘, 인간생명의 유한성 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紙의 서평전문지 「리터러리 서플리먼트(TLS)」 최근호는 세계 각국의 작가, 학자 36명이 뽑은 '92년 세계 최고의 책'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북리뷰」의 '올해의 책'이 영미권에 치우쳐 있고 내용도 비교적 대중성이 높는데 비해, 「TLS」의 것은 동구권까지 포함한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이 특징이다. 미국의 프랑스사 전문가 사이먼 샤마, 프랑스작가 미셸 투르니에, 영국 문학평론가 테리 이글턴 등 지성인들이 선정한 92년 최고의 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문학

올해 영미권에서 출간된 가장 뛰어난 소설로 많은 응답자들은 美여류작가 도나 타트의 처녀작 「비밀스런 역사」(바이킹)와 영국 작가 마이클 온타트체의 「영국 환자」(브룸스베리)를 꼽았다. 「비밀스런 역사」는 타트가 무려 8년만에 완성한 역사소설로, 모험적인 생활을 하던 대학생이 어느날 충동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져든다는 내용. "우아한 필치가 돋보인다"(힐러리 맨텔)는 평가를 받았다. 온타트체의 「영국환자」도 "詩的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작가의 탁월한 능력"(에드먼드 화이트)으로 주목을 끌었다.

중년 남자의 단독 항해를 그린 로버트 스톤의 「아우터브리지 리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포함, 현대인의 삶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으로 추천됐다. 평론가 알바레즈는 스톤을 "콘라드에 버금가는 스토리 텔러"로 극찬했다. 말에 미친 텍사스 십대들의 모험을 소재로 한 코맥 맥카르티의 「모든 아름다운 말들」(크넵프)은 "카우보이 소설을 고급예술로 바꾼 작품"(알바레즈)으로 꼽혔다.

폰 섹스(phone sex)란 이색주제로 美문단에 포르노 논쟁을 일으킨 니콜슨 베이커의 「복스」(그랜타), 17세기부터 1980년대까지 영국 농민의 삶을 탐구한 애덤토프의 「올버튼」(세커 & 워버그), 민주혁명으로 쫓겨난 공산당 지도자와 검찰관을 주인공으로 한 영국 인기작가 줄리언 반스의 「포푸파인」(케이프) 등도 92년 문단을 빛낸 작품들.

역사학자 사이먼 샤마는 사이몬 레이스의 「나폴레옹의 죽음」(퀴테트)를 올해 최고의 역사소설로 추천했다. 나폴레옹이 유폐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을 비밀탈출한 뒤 잃었던 권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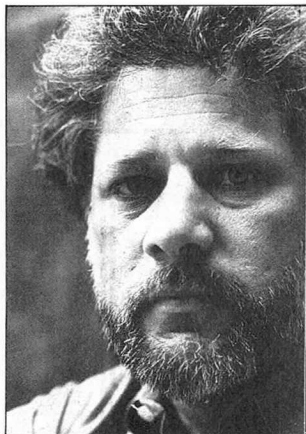
디나 타트



월터 아이작슨



에드바르트 라드진스키



마이클 온다트제

되찾기 위해 벌이는 행각을 유머러스하게 다룬 작품이다. 인간의 탐욕, 명예욕, 군중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공산체제의 몰락 이후 동구권 문화계 전반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秀作 소설들이 상당수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블라디미르 소로킨의 「다하우에서 보낸 한달」. 소로킨은 현재 러시아와 독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로, 늘 검은 옷차림에 과격적인 행동을 일삼아 「러시아 문단의 괴물」이란 별명까지 지니고 있다. 소설은 러시아 시민이 독일 다하우 강제수용소를 방문, 2차대전 때 이곳에서 겪은 고초를 회상한다는 내용. 평론가 빅토르 예로페예프는 이 작품을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독일과 러시아인이 겪어야만 했던 끝없는 고통, 권태에 대한 문학의 승리”로 극찬했다.

폴란드 작가 타데우즈 콘비츠키의 「보힌 마노르」도 강제수용소와 가스실을 무대로 폴란드 여성의 사랑을 다룬 소설.

帝政 말기 궁정음모를 소재로 한 러시아 작가 안 크로스의 「차르의 狂人」(영문판: 하빌)은 역사와 허구를 결합한 독특한 내용으로 관심을 끌었다. 1978년 에스토니아어로 첫출간된 이래 유럽 각국 문학상을 휩쓴 작품이다. 역시 러시아 작가인 블라디미르 오도예프스키(1804~69)는 「怪奇 이야기」(브리스톨, 더크워스)의 영문판 재출간과 함께 “에드거 앨런 포를 능가하는 추리작가”로 재평가받았다.

프랑스 소설로는 러시아 출신 가브리엘 마즈네프의 「등근 테이블」이 돋보였다. 파리와 낭시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남녀 대학생이 서로 상대방의 일기를 훔쳐 읽으며 경험하는 “사랑의 환상과 기만을 탁월한 솜씨로 파헤친 명

작”(미셸 투르니에)이란 評. 로베르 팽제의 중편소설 「테오 또는 새로운 시대」(미뉴)는 한 노인과의 증조카 테오를 중심으로 출생, 희망, 노쇠화, 죽음 등 삶의 단면들을 섬세하게 묘사해 주목받았다.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가 퀴터 그라스가 오랜 침묵 끝에 내놓은 「두꺼비 울음소리」(영문판: 세커 & 워버그)도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킨 문제작. 독일인 홀아비와 폴란드 과부가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단지(폴란드명 그단스크)에 독일, 폴란드인을 위한 공동묘지를 세운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이다. 이 소설은 “극단적인 인물설정과 단선적인 내용 전개”란 비판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란 극찬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독일문단에 保革논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詩분야에서는 영시인 클라이브 윌머의 「지상의 낙원」(카르카네트), 미시인 존 애쉬베리의 「호텔 로트레아몽」(크롭프, 카르카네트)이 올해의 최고 시집으로 뽑혔다.

### ■傳記, 일기, 서간집

올해 서구출판가에는 소련 연방체제의 와해 이후 러시아 황실 관련 책들이 다수 선보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최고 인기 극작가 에드바르트 라드진스키가 내놓은 전기 「마지막 차르」(영문판: 더블데이). 저자는 5년에 걸친 철저한 자료조사 끝에 로마노프왕조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성장과정 및 성격, 최후순간 등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차르가 유폐했던 예카테린부르크(現베르들로프스크)의 소비에트 당국과 모스크바 사이에 오간 전보 내용을 근거로 레닌이 직접 차르 일가

처형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전기작가 필립 보상의 「윌리」(갈리마르)는 루이 14세 때 궁정음악가 윌리의 삶을 중심으로 바로크 음악의 생성과 사회현실을 중심으로 조명한 작품. 프랑스 인기 추리소설가 조르주 심농의 생애를 파헤친 패트릭 만햄의 「메그레 아니었던 사나이」(브롬스베리)도 관심을 끈 전기이다. 메그레는 심농 추리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온화한 품성의 형사로, 작가의 퍼스널리티가 투영돼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설로 돼왔다. 그러나 만햄은 심농이 걸 모습과 달리 폭군적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스티븐 시트론의 전기 「노엘과 콜」(싱클레어 스티븐슨)은 슬한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노엘 카워드와 콜 포터 명콤비의 음악세계 및 우정을 다뤘다. 리사 아피나네지, 존 포리스트 공저 「프로이트의 여자들」(와이덴펠드)은 프로이트의 삶을 여자관계에서 바라본 정신분석학적 전기.

일기책으로는 프랑스 소설가 쥘 르나르(1884~1910)의 「일기 1887~1910」(라퐁), 폴란드 시인 귀스타브 체링의 「밤에 쓴 일기」(불역판: 갈리마르)가 높은 문학성을 이유로 추천됐다.

서간집으로 마이클 로빈슨 편역 「스트린드베리의 편지들」(알트론 프레스)은 스웨덴의 저명한 극작가 스트린드베리(1849~1912)의 편집중, 여성혐오증, 인종차별주의를 담은 내용으로 유럽 문화계에 충격을 던졌다.

### ■역사, 정치

2차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

다섯 가족들의 고난을 추적한 알렉산더 스틸의 「자선과 배반」(케이프)은 무솔리니의 유대인 박해정책을 가족사란 새로운 시각에서 파헤쳐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링컨 美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통해 미국 건국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재조명한 「게티스버그의 링컨」(사이몬 & 슈스터)도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소련 공산체제 붕괴 1주년을 맞아 쏟아져 나온 관련 책들 중에서 에세이집 「8월 쿠데타 이후 1년: 비통과 선택」은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고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수작으로 꼽힌다. 자본주의 물질 속에서 지식인들이 느끼는 박탈감,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 인종분규, 종교 등 러시아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에 관한 자료집으로도 유용하다.

### ■문학이론

인도출신 학자 아이자즈 아메드의 「이론: 계급, 국가, 문학」(베르소)은 “서구 문단의 제3세계에 대한 환상의 역사적 뿌리를 캐 탁월한 연구서”(테리 이글턴)로 평가를 받았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론가 폴 드만에 대한 비판론을 담은 길버트 아데어의 「작가의 죽음」(하이네만), 20세기말 문학 및 문화현상을 분석한 찰스 젠크스의 「포스트모던 독자」(아카데미)도 돋보인 책들이다.

### ■기타

프랑스의 저명한 종교 역사학자 장 들뤼모의 「낙원의 역사」(파야르)는 성서 속의 낙원 에덴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내용으로 화제를 일으켰다. 에덴이 있었던 구체적인 위치, 아담과 이브가 사용한 언어, 두사람의 나이, 이들이 에덴에 머문 기간 등 여러 궁금궁금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색 연구서이다.

과학의 본질을 알기 쉽게 해설한 루이스 윌프의 「과학의 非자연적 성질」(파이버), 현대문명과 동유럽 지역의 대변혁을 소재로 한 독일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에세이집 「주크 박스에 대한 시도」(주르캄프) 등도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혔다.